

# Best Partner For Your Success

# 제니엘



# IT개발 인재 채용 여전히 고민이신가요?

제니엘과 함께 최신 기술력을 보유한 풍부한 해외 개발 인재를 만나보세요!

29년 아웃소싱 전문 기업 제니엘이 믿을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 RKSoft와 함께 국내 시장에 디지털 혁신 기술을 제공하고 기업 경쟁력 향상을 도와드립니다.



A 서울 서초구 효령로 402, 제니엘 빌딩  
T 1588-1581 M 010-8291-4383

W www.zeniel.co.kr 카카오톡채널 제니엘 IT 아웃소싱  
©2024 Zeniel Inc. All Rights Reserved. (주)제니엘

# CONTENTS

2025 SPRING Vol.106

ZENIEL FAMILY	코스트코 양재점 삼성전자 매장 제품을 넘어 경험을 선물하는 갤럭시 큐레이터	04
	KB국민은행 법원문서센터 법원 문서 처리에 '신속·정확'을 더하다	08
	고용노동부 인재채움뱅크 육아 지원제도 활성화의 믿음직한 동반자	12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24시간 응급 대기 현장의 숨은 조율자들	16
	CEO 칼럼 성장과 혁신, 위대한 기업을 만드는 길	20
ZENIEL STORY	SPRING HEALTH 춘곤증의 원인과 극복 방법	24
	IT OFFSHORING Together Vietnam 2025	26
	CONGRATULATIONS 제니엘 우수 창안자 및 제니엘 우수 사원 소개	28
	제니엘 뉴스	30



발행일 2025년 3월 28일 발행인 박인주 발행처 (주)제니엘 www.zeniel.com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402 제니엘빌딩 TEL 02. 580. 0114 FAX 02. 580. 0104  
전략기획실 jminsoo7083@zeniel.co.kr 기획·편집 PEOPLE PAGE(대표번호 02. 6674. 0111)  
사보 <제니엘>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제니엘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의견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제니엘>에 실린 글과 사진은 사전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 제품을 넘어 경험을 선물하는 갤럭시 큐레이터

### 코스트코 양재점 삼성전자 매장

코스트코 양재점의 삼성전자 매장에는 조명보다 눈부신 미소로 고객을 맞이하는 이들 '갤럭시 큐레이터'가 있다. 제니엘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한 이들은 갤럭시 제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열정을 품고,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맞는 제품을 안내한다. 이들은 세심한 배려와 진심 어린 설명으로 고객에게 더욱 특별한 경험을 선물한다.

### 오직 고객을 위한 갤럭시 전문가들

다년간 삼성전자 갤럭시 제품의 큐레이터 서비스를 운영해 온 제니엘은 2025년 1월부터 코스트코 삼성전자 매장의 위탁 운영을 시작했다. 고객을 가장 가까이에서 맞이하는 '갤럭시 큐레이터'는 단순한 판매원이 아니다.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직관적인 설명으로 갤럭시 제품의 장점을 쉽고 정확하게 전달한다. 친절하고 따뜻한 응대로 고객에게 편안한 쇼핑 경험을 선사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들은 제품 진열과 매장 관리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며, 매 순간 최고의 서비스를 위해 노력한다. 갤럭시 큐레이터들은 업무를 유연하게 분배해 효율성을 높인다. 신제품 예약 판매가 시작되면 시연 제품의 자료를 조사하고, 신제품 정보 정리와 일정

관리를 분담한다.

한편, 주간 동향 보고서는 그날 출근한 직원이 맡아 책임진다. 그들의 활동은 매장 안에서 머물지 않는다. 라이브커머스 방송에 출연하거나 연기 활동을 병행하는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면서, 다른 매장의 지원 업무도 수행한다.

코스트코 양재점에는 세 명의 큐레이터가 상주하지만, 순환 근무자를 포함해 평균 4~5명의 큐레이터가 함께한다. 여러 매장을 순환하면서 다양한 응대 방식과 업무 스타일을 배우고, 다른 지역의 큐레이터들과 유대감을 쌓는다. 지난 4년간 갤럭시 큐레이터들을 이끌어 온 제니엘 SE운영팀 조재현 과장은 '유연한 운영 방식의 장점'을 소개했다.

“코스트코 직원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매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큐레이터들과도 원활한 소통과 배려를 기반으로 긍정적인 파트너십을 만들어가고 있죠. 함께하는 시간이 쌓일수록 자연스럽게 친밀감이 생기고, 협업도 더욱 빛을 발합니다.”



### 경쟁 대신 동반 성장, 이들의 진심

갤럭시 큐레이터에게는 판매 인센티브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실적에 대한 부담 없이, 제품 그 자체의 가치를 고객에게 정직·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덕분에 이들에 관한 자체 평가와 주변 평가는 떨어질 줄을 모른다. 큐레이터들은 분기별로 1~2회의 평가를 받게 되는데, 개인 RP(Role Playing, 개인 상황극) 영상, 팀 과제, 외국어 RP(Role Playing, 응대 상황극) 등 다양한 평가를 거친다. 말이 평가지 실질적인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실제로 큐레이터들은 항상 우수한 결과물로 이 평가를 마치고, 제니엘은 시상금을 지급하며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큐레이터들은 동료의 과제를 통해 배우고, 자극받고, 성장하면서 팀 전체의 역량을 끌어올린다.

조재현 과장은 팀워크의 힘을 강조했다. 갤럭시 큐레이터들은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에 살아온 길도 제각기 다르다. 하지만 서로의 차이를

존중한다. “가족보다 더 오래 보는 사이죠. 가끔 의견이 다를 때도 있지만, 쉬는 시간에 커피 한 잔 나누며 털어버립니다.(웃음)”

갤럭시 큐레이터들의 진정성은 고객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된다. 코스트코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만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직원들이 친절하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준다.” 고객들의 이런 한마디가 큐레이터들에게는 큰 보람이 된다.

조재현 과장은 잊지 못할 고객을 떠올렸다. 갤럭시 위치를 착용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고객이었다. “10분 안에 위치의 매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통화, 수면체크, 혈압측정 등 다양한 기능을 하나하나 설명했고, 고객은 감탄하며 적극적으로 기능을 익혔다. 이후 다시 양재점을 찾은 고객은 “갤럭시 위치를 통해 건강하고 편리한 삶을 누리게 됐다”라며 또 다른 제품을 구매했다.

이렇듯 고객을 향한 큐레이터들의 진심은 숫자로도 증명됐다. 코스트코 양재점은 갤럭시 S24 사전 예약 기간 동안 목표 판매량 298대를 가뿐히 뛰어넘은 467대를 판매하며 매장별 실적 1위를 기록했다. 폴더블 6 시리즈 판매 기간에도 전국 1위를 차지하며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 갤럭시의 가치를 더욱 알리는 한 해로

갤럭시 큐레이터들은 쇼호스트, 아나운서, 미인대회 출신은 물론 스피치 전문 교육을 수료하는 등 대면 서비스에 장점을 보이는 인재가 많다. 스피치라면 누구보다 자신 있지만 안주하지 않는다. 디지털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만큼 큐레이터들 또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한다. “업무와 스터디, 방송 활동을 병행하며 상담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외국어 자격증을 취득해 외국인 고객 응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지요.”

최근 코스트코 양재점의 큐레이터들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AI 기술이다. 갤럭시 S25에 탑재된 최첨단 AI 기능을 고객들이 쉽게 이해하고 일상에서 유

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매진한다. 이러한 노력의 바탕에는 제니엘의 든든한 지원이 있다. 사내복지기금을 비롯해 경조사 복리후생, 우수사원 포상 제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의 만족도와 업무 효율을 높인다.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출근할 때마다 자동 적립되는 복지 포인트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2025년에도 큐레이터들의 열정은 계속된다. 2월에는 갤럭시 S25 사전예약 종료 후 고객들이 원활하게 제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 이어 3월에는 삼성전자 합숙 교육을 통해 한층 더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폴더블 사전예약을 성공적으로 이끌 계획이다.

“코스트코 회원들에게 갤럭시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유익한 도움을 드리는 한 해를 만들고 싶습니다. 기존 사용자에게는 더욱 효율적인 사용법을, 아직 갤럭시를 접하지 않은 분들께는 갤럭시의 강점을 적극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 MINI INTERVIEW

### 현장관리자 TALK



#### 제니엘 SE운영팀 조재현 과장

제니엘의 갤럭시 큐레이터들은 뛰어난 자질을 가진 인재입니다. 적극성과 습득력, 외국어 능력까지 꼼꼼한 평가와 심층면접을 거쳐 선발됩니다. 그만큼 누구보다도 큐레이터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지요. 큐레이터들의 스펙이나 실전 능력은 다른 데와 비교할 수가 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나이와 경력은 서로 다르지만 저희가 만나 함께한 시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늘 힘이 돼주시고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함께여서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부족한 저를 믿고 늘 곁에서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양재점 화이팅!

“

전문성과 배려로 고객 맞춤형 안내를 제공합니다

”

왼쪽부터) 양재점 신동훈 큐레이터, 송도점 주혜원 큐레이터, SE운영팀 조재현 과장, 고척점 김동규 큐레이터, 하남점 정다희 큐레이터, 양재점 우예빈 큐레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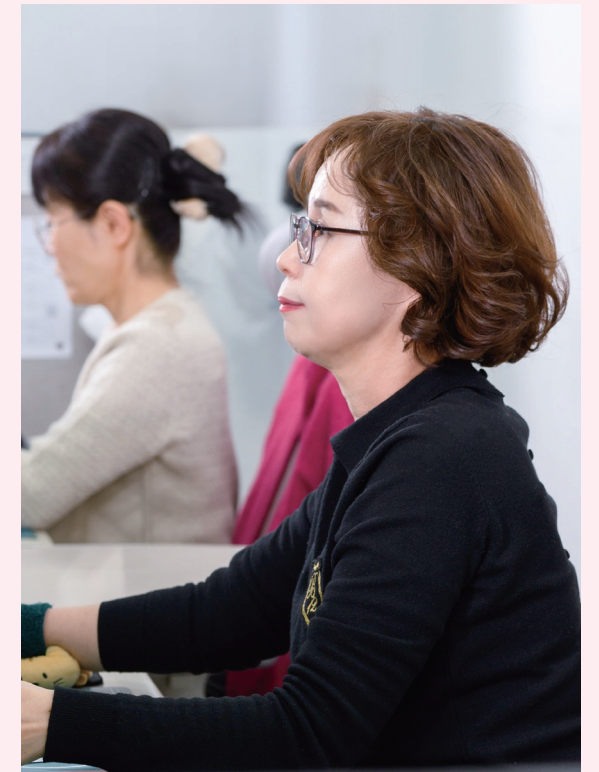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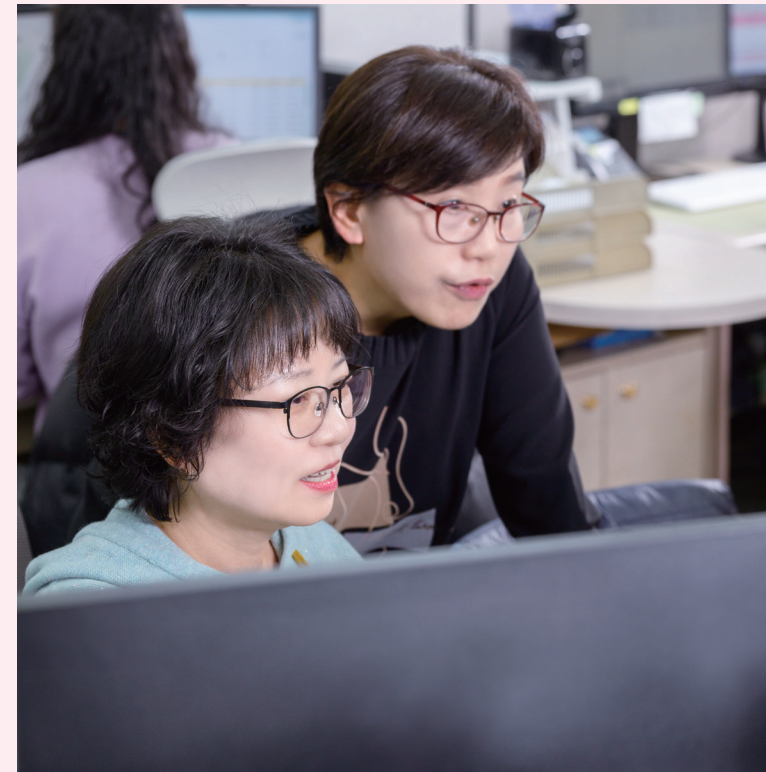
현장 개요    근무 인원 > 4~5명    위치 >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59 코스트코 양재점 내 삼성전자    주요 업무 > 제품 판매 및 고객 응대, 맞춤형 상담, 시연

## KB국민은행 법원문서센터

채권·채무 관계에 의한 은행 예금 압류 등록 및 해제와 추심 업무, 법원과 공공기관이 요청하는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량은 ‘신속과 정확’이다. KB국민은행 법원문서센터에서 일하는 제니엘 직원들은 꾸준한 자기 계발과 오래도록 쌓은 경험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를 실현하고 있다.



# 법원 문서 처리에 ‘신속·정확’을 더하다



### 예금 압류 및 금융거래 정보 처리 전담 조직

은행 예금은 채권·채무 관계 해결의 키워드 중 하나다. 돈을 빌린 사람이 빚을 갚을 의지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돈을 빌려준 기관 혹은 사람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은행 예금을 신속하게 파악, 압류하고 추심해야 한다. 그래야 빌려준 돈을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 법원문서센터는 전국의 법원·공공기관·채권자가 KB국민은행으로 보낸 은행 예금 압류 및 해제, 추심 문서를 접수하고 관련 내용을 파악한 뒤 등록하는 전담 조직으로, 고광래 소장을 비롯한 제니엘 직원 32명이 근무하고 있다. 사건 조사, 자금 흐름 추적, 범죄 혐의 파악 등을 위해 검찰·경찰·법원 등에서 발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서

를 접수·등록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고광래 소장은 “전국에서 쏟아지는 KB국민은행의 해당 업무를 도맡다 보니 하루가 눈코 뜰 새 없이 지나간다”라며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전국에서 KB국민은행으로 보내오는 문서들은 다음 날 오전 8시경 우리 센터로 일괄 배송됩니다. 직원들은 각자 배당받은 문서를 일일이 스캔해 전자 문서화하고 관련 법·절차적 내용을 검토한 뒤 은행 예금 압류와 압류 해제, 추심 및 금융거래 정보 제공 여부를 등록합니다. 이런 와중에 전자문서로 송달된 건들도 처리하는데, 우리에게 전달되는 문서만 하루 평균 약 4,000건에 달합니다.”

신속성과 정확성은 이들 업무의 핵심 덕목이다. 업무 처리 지연, 압류 등록 누락 및 착오 입력 등의 불상사가 벌어지면 곧바로 채권자와 은행 고객의 손해로 이어지기 때문. 따라서 각종 문서가 밀려드는 오전 시간대에는 모든 직원이 맡은 업무에 집중하느라 사무실이 도서관처럼 고요하다는 게 고광래 소장의 말이다.

### ‘멀티 플레이어’로의 도약을 지향하다

KB국민은행 법원문서센터 직원들은 은행 예금 압류 및 해제 등록 업무를 처리하는 4개 팀, 기타 법원 문서 처리 및 추심 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1개 팀, 금융거래 정보 제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1개 팀 등 총 6개 팀으로 구성돼 있다. 각 업무의 내용과 처리 과정이 상이하긴 하지만, 다른 팀의 업무를 외면하는 일은 없다. 예를 들어 우리 팀의 업무가 비교적 여유로운데 타 팀 업무가 과중하다면 기꺼이 지원의 손길을 뻗는다. “팀별 업무가 명확하지만, 유사시 다른 팀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센터 자체 연수를 실시해 각 업무의 내용과 현안에 대해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상황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직무 재배치를 실시함으로써 모든 직원이 ‘멀티 플레이어’로서 활약할 수 있게 독려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직원들도 여유가 있을 때 자발적으로 다른 팀의 업무 일부를 가져와서 직접 해 보기도 하고, 궁금한 점을 묻고 답하면서 센터 업무 전반의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장기근속 직원이 많다는 점도 KB국민은행 법원문서센터의 차별화된 경쟁력이다. 10년 이상 장기근속 직원이 절반 가량인데, 근속 햇수를 5년 이상으로 놓고 보면 전체 인원의 80%에 육박한다. 그렇다 보니 센터 전체의 업무 처리 역량이 지극히 높고, 초임자들의 능력도 자연스럽게 향상된다. 고광래 소장과 직원들은 시시각각 쌓이는 업무 경험과 노하우에 더해, 민법 등 관련 법률을 공부하고 채권·채무와 관련된 기사와 자료를 수집해 공유·토론하는 등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 계발에도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업무 오류 제로화’를 향해 나아가다

업무와 관련된 이슈를 꾸준히 파악하다 보니 이를 통해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은행 예금 압류를 등록하면 계좌 보유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로 압류 관련 안내사항이 전송 되는데, 문자메시지 미수신 고객에게는 직접 전화 해 압류 사실을 알리기도 한다.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 직원이 고객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공교롭게도 외국인이 전화를 받았다. 갑작스럽게 들려온 영어에 당황스러울 법도 했지만, 해당 직원은 최근 외국인 예금 압류 건이 늘고 있다는 사실을 기사로 접한 뒤 외국인 고객이 전화를 받으면 어떻게 응대해야 할지를 미리 연습해 뒀고, 덕분에 수월하게 압류 사실을 전달할 수 있었다. “당장의 업무 처리만 해도 정신이 없을 텐데, 업무 시간 외에 업무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까지 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이처럼 뜨거운 직원들의 사명감은 좋은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2024년에는 고객사인 KB국민은행이 위탁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분기별 SLA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세 번 받았을 정도로 업무 역량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법원문서센터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관리하는 성과지표는 ‘업무 오류’다. 법적 채권·채무 관계 관련 업무를 다루는 만큼, 업무 오류를 제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게 고광래 소장의 설명이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고 처리해야 할 업무량이 워낙 많다 보니 아예 오류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를 제로화 수준으로 낮춤으로써 KB국민은행과 은행 고객에게 끼치는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KB국민은행 법원문서센터 직원들. 고요한 사무실 분위기 속에서도 이들의 업무 열정은 그 어떤 현장 못지않게 활활 불타고 있다.

## MINI INTERVIEW



왼쪽부터) 김호선, 김경옥, 이정임, 이보람, 고광래(소장), 허은숙, 허은영

“ 경험과 자기 계발로 조직과 함께 성장하는 제니얼스 ”

### 현장관리자 TALK



#### KB국민은행 법원문서센터 고광래 소장

우리는 지금껏 서류 한 장, 데이터 하나까지 온전히 집중하며 업무를 수행해 왔고, 그 결과 KB국민은행과의 신뢰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소한 부분도 놓치지 않으려 애쓰는 우리 직원들의 진심 어린 노력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주어진 업무에 몰두하는 가운데 동료들과 긴밀하게 협업해서 조직과 개인이 동반 성장하는 KB국민은행 법원문서센터를 만들어 갑시다!

# 육아 지원제도 활성화의 믿음직한 동반자

## 고용노동부 인재채움뱅크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연신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여러 원인 가운데 직장인 상당수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육아 지원제도를 활용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고용노동부 인재채움뱅크는 육아 지원제도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을 주는 대체인력 채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에 기여하고 있다.



## 대체인력 맞춤 채용의 허브

근두박질치는 출산율을 반등시키기 위해 정부가 각종 육아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기업들도 육아 지원제도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과 직장인은 육아 지원제도 활용을 주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일수록 짙다. 직원이 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하면 업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중소기업에서는 이를 메울 대체인력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다. 인재채움뱅크는 육아 지원제도 활용에 뒤따르는 대체인력 수급을 둘러싼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대체인력 채용 지원 시스템이다. 기업의 대체인력 구인 수요와 대체인력 일자리를 희망하는 구직자를 발굴한 뒤, 기업과

구직자 모두가 만족하는 맞춤 채용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인재채움뱅크의 핵심 업무다. 아울러 기업의 대체인력 활용 현황 모니터링, 구직자 기초 소양 및 직장 적응 교육 시행, 대체인력 취업자 사후 관리 등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5개 위탁기관을 통해 인재채움뱅크를 운영하는데, 제니엘은 2024년 신규 운영기관으로 인재채움뱅크에 합류했다. 박현숙 센터장을 포함해 제니엘 직원 4명이 소속돼 있으며,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대체인력 채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명은 성남에서, 1명은 울산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박현숙 센터장이 이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모든 소속 직원이 동일하게 대체인력 채용 지원 업무를 수행하지만, 직원별 담당 지역은 서울권, 경기·인천권, 경상·전라권, 충청·강원권으로 나뉘어요. 이를 통해 지역별 대체인력 채용 네트워크 활용도 향상하는 동시에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 맨땅 위에 틈은 값진 결실

모든 일은 기초가 탄탄해야 제대로 굴러간다. 인재 채용은행 업무의 기초는 '기업 대체인력 구인 수요'와 '대체인력 일자리 구직자 풀(Pool)'이다. 이런 측면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인재채용은행 사업을 시작한 제니엘 직원들은 업무 수행에 다방면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맨땅에서 대체인력 구인과 채용의 두 요소를 싹 틔우고 키워야 하는,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이 지난 1년 동안 줄곧 이어졌다. 이 같은 인고의 시간을 무사히 견뎌 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포기를 모르는 직원들의 열정적 도전 정신이 있었다는 게 박현숙 센터장의 이야기다.

“아무래도 10년 넘게 운영된 기존 인재채용은행 협력 기관들에 비해 미비한 부분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처음 진입한 사업의 기틀을 마련해야 했으니, 직원들이 참 애를 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직원이 대체인력 채용이 필요한 기



이런 와중에 의미 있는 성과도 창출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한 경력 단절 여성이 그간의 경력을 살려 회계직 취업을 원한다며 인재채용은행의 문을 두드렸는데, 제니엘 직원들의 다각적 지원으로 원하는 직종에 취업한 데 이어 '2024년 대체인력 취업 우수사례 공모전'에 취업 사례 수기를 제출해 구직자 부문 우수상을 받은 것이다. 인재채용은행 운영기관으로 합류한 지 약 1년 만에 거둔 값진 결실에 제니엘 직원들의 사기가 고무됐음은 물론이다.

### '아이 낳기 좋은 대한민국'을 향한 노력

사업 첫해인 작년, 제니엘 직원들은 경기·인천권을 최초의 업무 지역으로 할당받았다.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운영기관들에 비해 다소 불리한 사업 환경이었지만,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이들은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어 냈다. 덕분에 올해부터는 전국을 무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사업 2년 차에 접어들자마자 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을 얻었으니 들뜬 만도 하지만, 제니엘 직원들은 기쁨을 즐기는 대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단단하게 정신 무장하기로 뜻을 모았다.

“여러 여건이 비교적 나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제니엘 직원들은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목표 취업자 수를 달성하기 위해 구인 기업 및 구직자 풀을 더욱 폭넓게 확보하는 일도 올해의 핵심 목표로 삼았다.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덕분에 지금까지는 주간·월간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는 만큼,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나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박현숙 센터장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들의 열띤 활약이 일·가정 양립과 모성 보호, 나아가 우리나라 출산율 반등으로 면면히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서는 육아 지원제도 활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지만, 1~2명만 자리를 이탈해도 빈자리가 고스란히 티 나는 중소기업에서는 육아 지원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인재채용은행 운영기관들에게 대체인력 구인을 원하는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데요. 우리 직원들도 지침에 따라 2025년에는 전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재채용은행의 존재와 육아 지원제도 활용 및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지원책을 알리는 데 집중하려 합니다.”

## MINI INTERVIEW



“

일·가정 양립의  
국가적인 과제 해결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

현장관리자 TALK

#### 고용노동부 인재채용은행 박현숙 센터장

신규 수주 사업의 어려움, 기존 운영기관과의 어쩔 수 없는 격차에도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주신 직원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맡은 일은 대체인력 채용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넘어, 우리나라 출산율 향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하나로 똘똘 뭉쳐 최선을 다한다면 제니엘 인재채용은행과 우리나라 출산율의 동반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왼쪽부터 박현숙(센터장), 윤서영, 진영나

현장 개요 > 근무 인원 > 4명 > 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65, 301-2호 > 주요 업무 > 대체인력 채용 지원 서비스

# 24시간 응급 대기 현장의 숨은 조율자들

##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도로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흥해가 갈라지듯 자동차가 비켜서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당연히 병원에서도 마찬가지다. 구급차 통행로가 늘 비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도착해야 할 구급차의 동선 확보를 위해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의 제니엘 근무자들은 24시간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입구부터 응급실까지의 생명길을 연다는 자부심

1980년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에 개원한 한림대학교의료원 산하 강남성심병원은 40여 년간 국민 건강 증진을 실천해 온 굴지의 대학병원이다. 역사와 전통에 더해 세계 우수 대학병원과의 첨단 신의료기술 개발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선진 의료를 구현하며 10개의 특성화 전문센터를 운영해 환자 신뢰가 높다. 도심 심장부에 자리한 만큼 내원객도 많다. 하루에 2,000여 명이 드나드는 병원에서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사람들이 제니엘의 주차관리 담당 직원들이다. 제니엘은 초창기 의료 전문 파견 서비스를 시행할 무렵부터 강남성심병원의 주차관리 및 경비 위탁 운영을 담당해 20년 넘게 전담하고 있다. “장기근속자가 많아요. 저만 해도 13년째 근속하고 있고, 짧게 잡아도 대부분 5년 이상 근무했습니다. 병원의 역사와 함께하는 산증인들이죠. 내원 시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면서 주차관리의 중요성

은 나날이 커졌는데요. 2019년 신관을 개원하고 주차타워가 들어서면서 노상주차장의 과밀도는 줄었지요. 그래도 주차관리란 여전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하루 40~50대가량 수시로 드나드는 구급차의 통행을 위해서 말이죠.”  
현장을 총괄하는 강기석 소장은 주차관리 업무에 자부심을 보이며 특히 중요한 업무로 응급환자 이송과 관련된 구급차의 동선 확보를 예로 들었다. 출입구부터 응급의료센터까지의 이동 선상에 노상주차장이 길게 배치된 형태라 주차관리 직원의 세심한 주의 관찰과 직원 간 호흡이 중요하다고. 주차할 데가 눈에 띄지 않는 상황에서 ‘금방 다녀올 건데 뭐’ 하는 생각으로 차를 정위치에 대지 않는 방문객도 간혹 있는데, 이럴 때는 빠르게 눈치채서 요령껏 상대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주차 위치를 안내해야 한다.

“우리는 차를 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스스로를 서비스하는 사람이라 여기고, 서비스 마인드 유지를 위해 아침식사 전후로 조례를 통해 이를 상기하곤 합니다.”

### 원활한 병원 운영을 위한 노력이 성과 그 자체

병원에 근무하는 보안경비 및 주차관리 직원의 수는 총 44명. 보안경비 직원의 수가 10명, 주차관리 직원의 수가 34명이다. 근무 범위는 본관 1~3동, 신관 1·2동의 건물 및 노상주차장, 주차타워를 아우른다. 담당자 수의 차이에서 보듯 주 업무는 주차관리지만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만큼 보안경비의 업무도 꼼꼼하게 챙긴다.

“2개 조 격일제 근무를 합니다. 밤에는 외래 진료가 없긴 하지만 입원환자도 있고, 응급환자도 있어 병원은 24시간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분배 및 유휴 시간의 효율적인 협업이 중요하죠. 비록 담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에는 실외 근무의 여건을 고려해 핫팩 등의 방한용품도 확실하게 지원한다. 근로조건 특성상 날씨의 영향이 없을 수는 없다. 사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요령이랄 게 없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유연한 주차관리, 친절하 안내로 병원 운영에 어떠한 지장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를 스스로의 성과로 여긴다. 그러한 노고를 병원에서 모를 리 없다. 강남성심병원에서는 개원기념일마다 모범 직원을 표창하는데, 이때 제니엘 직원의 이름이 빠지지 않고 호명된다.

### 자기 관리가 만들어낸 스스로의 복, 그리고 바람

“익숙한 일이라고 허투루 하지 않아요. 업무에 맞는 나이대가 있다 보니 여기 근무자 대부분 나이가 좀 있지만, 늘 배우려 합니다. 주차장은 어디든 있잖아요. 어디 가든 꼭 주차장의 관리상태와 근무 직원의 복장, 태도를 보곤 하죠. 벤치마킹을 위해 단체로 다른 병원, 예식장과 같은 곳에 견학을 다녀온 후 일부 우리 병원에 적용한 적도 있습니다.”

가령 한 예식장 주차관리자의 복장에서 영감을 받아 중절모와 연미복을 근무복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물론 차량 이동을 위해 차에 탑승할 때 모자가 차 천장에 걸리는 등 근무에 지장을 줘서 오래지 않아 그만뒀다. 하지만 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는 태도 자체가 이들의 무기이자 장점이다. 이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제니엘 관리자 허송미 실장은 말한다.

“전년과 같이 아픈 직원 없이, 무사고로 올해를 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목표보다 큰 바람이 있다면, 병원에는 아픈 사람이 많이 드나들잖아요. 특히나 정기적인 방문이 필요한 분들과는 안면을 틔 경우도 많은데요. 이분들이 갑자기 내원하지 않게 되는 일 없이 치료를 통해서라도 오래도록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당 업무는 나뉘어 있지만, 아간에는 주차관리 직원이 보안경비 업무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오랜 노하우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원활한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병원에서도 함께한 시간이 긴 만큼 제니엘 직원들을 각별하게 대한다. 소속 직원과 동일하게 진료비 할인 등의 복지 혜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출근하자마자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직원들에게 교수들도 먼저 인사를 건네며 음료를 챙겨 주곤 한다.

## MINI INTERVIEW



왼쪽부터) 허송미(실장), 이용철, 문성호, 김찬식, 이정주, 전왕택, 채창병, 고영길, 박운식, 강기석(소장)

“

### 경험 많은 직원들의 서비스 자세가 장점

”

#### 현장관리자 TALK

####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강기석 소장

인생 경험이 풍부한 장년의 남성들이 다년간의 노하우로 병원 보안 및 주차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씨에 일하더라도 항상 밝은 표정인 모두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당부할 거리가 따로 없을 만큼 다들 워낙 잘해주고 있으니, 평소처럼 서로의 발전을 위해 애쓰는 모습 그대로 일해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히 지냈습니다. 멋있고 당당한 모습으로 계속 합심해서 즐겁고 행복하게 일하는 제니엘 가족이 됩시다.





## 박인주

제니엘그룹 회장

“**성장**과 혁신  
위대한 기업을 만드는 길”

존경하는 제니엘 임직원 여러분, 오늘은 ‘제니엘이 위대한 기업으로 성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위대한 기업은 지속 가능해야 하고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고객의 가치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둘째, 사회적 가치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셋째, 내부 고객(임직원)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특히 임직원 여러분은 자신의 역할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조직 문화가 회사 곳곳에 스며들어야 하고, 직원들이 자부심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회사가 돼야 합니다. 실무자는 실행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담당해야 하며, 관리자는 조직의 비전(vision)과 팀 역량을 연결해 성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경영진은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성장하는 사람의 자세

그렇다면 성장하는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목적의식’이 중요합니다.**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4선에 성공한 프랭클린 D. 루스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 대통령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상원의원 시절이던 1921년, 뉴욕 주지사 선거 준비에 앞서 가족과 휴가를 보내던 중 갑자기 소아마비에 걸려 꿈을 포기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너는 할 수 있다”라며 의지를 북돋아 주었고, 루스벨트는 힘의 재활 과정을 묵묵히 이겨내며 매년 미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지사가 되겠다는 목표에 다시 도전했습니다. 그 후 지역 주민과 적극 소통하며 주지사에 당선됐고, 이후 대통령이 되기 위해 국방, 외교, 경제, 복지 등 다양한 분야를 철저히 공부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랐지요. 이처럼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습관 형성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자세는 ‘지속적인 학습’입니다.** 제니엘에서 운영하는 ‘수요 MBA’와 같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관리자를 양성하며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의견을 1시간 동안 펼쳐보는 경험은 개인의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이 서로 토론하고 생각을 공유하며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적의식 #지속적인 학습 #책임감

**세 번째로 중요한 자세는 '책임감'입니다.** 제니엘은 직원들에게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는 자세를 기르도록 강조하고 있으며, 모든 업무를 '내 일'이라는 태도로 임하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임감을 통해 개인과 조직이 성장한 사례 중 하나가 '도요타'입니다. 도요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5년부터 1950년 사이에 빠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성장의 핵심 원인 중 하나는 TPS(Toyota Production System) 도입입니다. 직원들이 자체 시스템의 부족함을 느끼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면서 혁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도요타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제니엘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니엘 휴먼은 '에코 시스템(Eco System)'을 도입해 물류 중심의 사업을 혁신했습니다. 당시 고객들은 단가 인하와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에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객 맞춤형 물류 솔루션을 제공해, 물류 운영 노하우를 체계화하고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했습니다. 그 결과, 물류 전문기업으로서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고 현재는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고객 우선주의의 중요성**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고객 우선주의'입니다.** 그중에서도 고객의 진짜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LG전자는 고객이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는 환경에 직접 참여해 제품 개선 아이디어를 얻는 '고객 동행 리서치'를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생활가전 제품의 사용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KG 모빌리티는 기존 소사장제(부문별 독립 운영) 방식으로 인해 급여, 복지, 과잉 인력 배치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니엘은 통합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급여 및 복지 기준을 일원화하고, 업무 분석을 통해 적정 인력을 배치해 원가 절감 효과를 실현했습니다. 이를 통해 직원과 고객 모두가 신뢰를 형성하며 운영 효율성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더불어, 현대자동차의 경우, 북미 시장에 처음 진출했을 때 품질 문제로 고객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0년/10만 마일 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해 품질 개선에 집중했고, 결국 고객 신뢰를 회복하며 북미 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제니엘 역시 고객을 위한 혁신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판매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단순한 판매 인력 공급을 넘어 실시간 매출 분석 및 최적의 운영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고객사의 매출 증가에 기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신뢰를 얻고, 비즈니스 성장의 파트너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뢰를 구축하는 것도 고객 우선주의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투명성을 바탕으로 정직하고 개방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하며, 고객의 실질적인 이익을 증대시키는 가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소통과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투명한 원가절감으로 고객의 신뢰를 얻은 '다이소', 선제적 운영전략을 통한 비용 절감으로 고객의 신뢰를 얻은 '제니엘-아모레퍼시픽',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매출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고객의 신뢰를 얻은 '제니엘-나이키' 등 여러 사례를 통해 우리는 신뢰 구축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고객 우선주의 #신뢰 구축**



**제니엘의 미래**

제니엘은 글로벌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해외(인도네시아) 인력 아웃소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베트남 IT 기업 '리케이소프트(Rikkeisoft)'와 MOU를 체결해 IT 개발자 오프쇼어링(Offshoring)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차세대 사업으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위탁경영 사업을 진행하고, 미래 식량 관련 사업과 신탁사업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우리 제니엘이 위대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구성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변화부터 실천하고 습관화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효과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1%의 변화가 놀라운 결과로 이어집니다. 오늘부터 내가 실천할 1가지를 정하고, 3개월 후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함께 점검해 봅시다. 더욱 발전해 나가는 제니엘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의 변화**

# 춘곤증의 원인과 극복 방법

날씨가 풀리면 겨우내 움츠렸던 몸도 풀리고, 유독 졸음이 몰려온다. 쏟아지는 춘곤증을 예방하고 봄날을 더욱 활기차게 보낼 수 있도록 극복 방법을 소개한다.



## 나른한 봄에 찾아오는 춘곤증

신록이 푸른빛을 띠기 시작하는 봄에는 우리 몸까지 덩달아 간질간질하다. 그런데 마냥 새 힘이 솟을 것만 같은 봄에도 마뜩잖은 손님이 찾아오곤 한다. 나른하게 졸음이 쏟아지는 춘곤증이다. 피로감, 졸음, 식욕부진, 소화불량, 집중력 저하, 현기증 등이 대표적인 춘곤증의 증상이다.



이때는 잠을 충분히 자도 졸음이 쏟아지고, 권태감과 나른함을 느껴 일의 능률까지 떨어진다. 짜증도 쉽게 나고 심한 경우 손발 저림, 눈의 피로, 불면증, 두통을 겪기도 한다. 춘곤증의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로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계절 변화에 따라 생체가 적응하는 과정에서 피로감과 졸음이 발생하는 생리적인 현상.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낮이 길어지고 그만큼 우리 몸의 햇볕 노출도 증가한다. 이에 따라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분비의 변화가 생겨 생체 리듬이 불안정해진다. 또 기온이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근육이 이완되고 일상에서의 활동도 늘어나는데, 신체는 아직 이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 이 같은 불안정성과 신체 적응의 복합적인 결과가 춘곤증이라고 설명한다. 영양소 소모 증가에 따른 측면도 있다.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는 봄철에는 비타민 B·C와 같은 영양소 소모량이 겨울철보다 3~5배 증가하는데, 충분히 빠르게 영양 보충을 해주지 않으면 춘곤증 증상이 심화된다. 마지막으로 심리적인 요인이다. 졸업, 입학, 입사와 같이 개인적인 변화가 많은 봄철에는 스트레스가 증가해 이에 따라 피로감이 가중될 수 있다.

## 춘곤증, 이렇게 극복하자

도저히 떨쳐낼 수 없을 것만 같은 춘곤증도 증상을 완화하거나 없앨 수 있다. 봄을 맞을 때의 신체 적응 과정을 앞당기고,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며 스트레스를 관리한다면 말이다. 우선 충분한 수면을 포함해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어 7~8시간 동안 충분히 수면을 취하자. 낮잠이 피로 풀기에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밤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30분 이내로 가볍게 취하도록 하자. 신체 적응을 돕는 운동은 일주일에 3~5회, 스트레칭과 걷기와 같은 가벼운 운동을 한 번에 30분 이상 하자. 영양 관리도 필수다. 비타민 B, C가 풍부한 냉이, 달래 등의 봄나물과 단백질이 풍부한 우유, 생선, 달걀 등을 추천한다. 단백질은 졸음을 쫓는 효과가 있어 낮에 섭취하면 좋고, 당질이 풍부한 곡류, 과일, 야채, 해조류 등은 밤에 섭취하기를 권한다. 다만 점심을 많이 먹으면 식곤증까지 더해져 춘곤증이 가중될 수 있으니 유의하자. 아침 햇볕을 쬐면 좋다.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분비를 멈추고, 활동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분비가 촉진되기 때문. 벌을 쬐면 밤잠이 잘 온다고 하는데, 햇볕이 멜라토닌 호르몬의 온·오프 스위치 기능

을 해줘 올바른 수면 주기를 만들어 줘서다. 잠을 쫓는다고 카페인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카페인은 일시적인 각성을 유도하지만 피로감을 악화시키므로 역효과가 나기 쉽다. 음주와 흡연 역시 마찬가지. 신체에 부담을 주는 술과 담배는 피로감을 가중하는 요인이다.

## 실천 사항 준수와 건강 관리

춘곤증은 약 2~3주 정도 짧은 기간에 나타나곤 한다. 과도하게 경계할 일은 아니지만 춘곤증의 극복 방법을 실생활에 적용해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다른 해보다 손조롭게 이번 봄을 날 수 있지 않을까. 위의 실천 사항을 잘 지킨다면 올바른 생활습관이 형성돼 다른 계절에도 더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증상이 6주 이상 지속된다면 다른 질병일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춘곤증의 증상은 만성피로, 갑상샘기능저하증, 빈혈, 수면장애, 간 질환으로 인한 간 기능 저하, 비정형적 우울증 등 다른 질병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충분히 자도 장기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면 병원 등의 기관에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자.

# Together Vietnam 2025

제니엘, IT 오프쇼어링 다룬 <Together Vietnam 2025> 컨퍼런스 개최

“제니엘은 베트남 리케이소프트(Rikkeisoft)와의 협업을 통해 우수한 IT 인재의 오프쇼어링을 진행하고, 인력난을 겪는 IT 업계에 인력 제공부터 관리까지 종합 서비스 모델을 제시할 것입니다.”



행사 개요	
행사명	<Together Vietnam 2025> 컨퍼런스
주관	제니엘그룹
일시	2025년 2월 26일
장소	양재 엘타워
초청	국내 IT 기업 경영인, 개발 부문 리더 등 오프라인 C Level 및 직책자 68명
주제	IT 개발자 오프쇼어링 서비스 과제와 해결 방안
목적	① 국내 IT 기업이 해외 개발 인력 도입에 대한 실질적 정보와 노하우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 ② 베트남 IT 인재의 우수성과 협업 기회 홍보 ③ 글로벌 협력 사례를 통해 IT업계 성장 방향성 제시

## 행사 진행 배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간한 <2024 ICT 중소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 IT 기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시스템 엔지니어 사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가속화되며 IT 기술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안으로 떠오른 ‘오프쇼어링(Offshoring)’. 오프쇼어링은 고객이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력관리를 전문기업에 맡김으로써 인력 채용·교육·관리 등의 고정적 지출 비용을 절감시키는 솔루션이다. 현재 LG CNS, 신한 DS, 티맥스소프트 등 국내 다수 기업이 개발도상국 오프쇼어링에 집중하며 개발 인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 행사 진행 내용

### 컨퍼런스 세션 1\_발표

- \* 제니엘 유리 사업혁신실장
  - ▶ IT 오프쇼어링의 현재
  - ▶ IT 오프쇼어링을 해야만 하는 이유
  - ▶ 기존 오프쇼어링의 과제와 해결 방안
  - ▶ IT 오프쇼어링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 ▶ 제니엘의 차별화된 오프쇼어링 솔루션



### 컨퍼런스 세션 2\_패널 토론

- \* 사회자: 제니엘 이장석 부사장
- \* 패널: 제니엘 정민수 전략기획실장, 리케이소프트 한국법인 Phan Thi Lan Anh 지사장, Kyndryl 이동철 전무이사, SK C&C 최혜원 본부장
- ▶ ‘IT 오프쇼어링의 과제, 그리고 새로운 선택’을 주제로 패널 토론
- \* 해당 토론은 기업의 C-level 및 IT 리더의 실제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됐으며, 세션 1의 인사이트 및 정보를 객관화 및 일반화해 청취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IT 오프쇼어 서비스의 글로벌 및 국내 미래 전망과 전략적 협업방안을 제시해 청취자의 IT 오프쇼어 서비스의 수요를 생성하고 확신을 부여함.

### 컨퍼런스 세션 2 이후\_리케이소프트 소개

- ▶ 제니엘의 전략적 파트너 ‘리케이소프트(Rikkeisoft)’의 한국법인 Phan Thi Lan Anh 지사장이 리케이소프트의 강점 소개



# 안전보건활동 연간 우수자

## “창안 대상” 수상자를 소개합니다!

제니엘은 모든 사업장 내 근로자들이 재해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매 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안전보건 활동 우수 창안자를 선정한다. 또한 그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1명을 선정해 연간 우수 창안자, 즉 “창안 대상”으로 포상하고 있다. 안전보건 활동, 사업장 내 기계 및 기구 위험성 개선과 같은 재해예방 활동에 동참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니엘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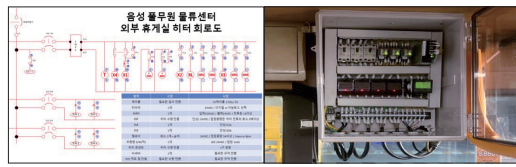
### 2024년 창안대상 수상자

소속 풀무원 음성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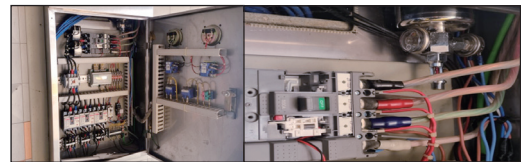
성명/직급 김관현/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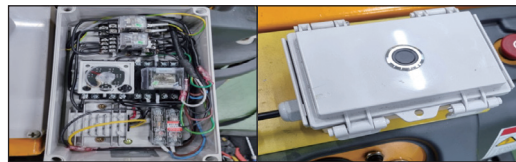
**1 상하차 모니터링 시스템**  
차량 출발로 인한 작업자 추락 방지



**2 휴게실 히터 제어반**  
히터 과열 및 화재 방지



**3 분전반 화재 방지 온도 센서**  
결로나 아크 방전으로 인한 화재 방지



**4 전동 핸드 팔레트 트럭 지문인식기 도입**  
허가된 작업자 이용 설계



**5 작업자 감지 시 로봇 자동 정지**  
로봇 작업 중 작업자 충돌 방지



**6 도크 도어 안전 센서 설치**  
도크 도어 하강 시 작업자 끼임 방지



**7 방열문 내외 작업자 확인용 CCTV 설치**  
시야 확보를 통한 충돌 방지



제안 내용

# 제니엘 우수사원을 소개합니다!

뛰어난 성과로 제니엘을 빛낸  
2025년 1분기 우수 인재를 소개합니다.

제니엘은 소속 직원들의 소속감과 성취감을 높이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매월 1일에는 뛰어난 성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직원을 우수사원으로 선정·발표해 격려한다. 선정된 우수사원에게는 상장과 함께 제니엘 복지몰 '월샵'에서 사용 가능한 5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제공한다.

우수사원 선발 기준은 제니엘의 3가지 핵심정신 '도전하는 나', '책임지는 나', '함께하는 나'를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가치를 실천하며 다른 동료에게 모범을 보이는 직원이 제니엘의 자부심이 된다. 협력과 책임을 다해 최고의 성과를 이뤄내는 직원이라면 누구나 우수사원이 될 수 있다. 2025년 1분기 제니엘의 우수사원으로 선정된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을 기대한다. 제니엘은 항상 직원들의 성공을 응원하며 그들이 더 큰 성과를 이루도록 지원할 것이다.

2024년 12월 우수사원

2025년 2월 우수사원

2025년 3월 우수사원

**유통사업부**  
우주하 세라젠

**컨택센터사업부**  
손경필 서울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김유경 롯데카드 금융센터  
주명선 롯데카드 금융센터  
오미경 롯데카드 CRM센터

**의료사업부**  
나정수 의정부 을지대학교병원  
장지원 일산차병원

**제조1사업부**  
엄연옥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제조2사업부**  
하두성 코스비전 생산

**유통사업부**  
이호진 상상나라

**잡스카이컨설팅부**  
차주성 국방전직교육원

**의료사업부**  
정필원 부천순천향병원/환자이송  
신준혁 부천순천향병원/환자이송

**컨택센터사업부**  
최길수 한국무역정보통신 공동인증센터  
나수진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메아리실  
박진영 우아한청년들 운영지원센터  
윤수화 신한라이프 콜센터

**제조1사업부**  
김다영 대한항공 김해공항화물청사

**제조2사업부**  
김태현 코스비전

**HR-Biz사업부**  
김현우 신성통상  
박소연 세라젠

**컨택센터사업부**  
임수경 제니엘시스템 콜센터  
김현아 국제상담센터  
전자세금계산서 상담센터  
정지범 이스트소프트 고객지원팀

**의료사업부**  
오희석 순천향대학교부속서울병원(파견)

**제조1사업부**  
윤현태 KGM(PQC)  
박준석 세일병원

**제조2사업부**  
구본희 아모레퍼시픽

# ZENIEL NEWS



## 제니엘그룹, 창립 29주년 기념행사 성료

종합 HR 솔루션 컨설팅기업 제니엘그룹이 창립 29주년 기념행사를 본사에서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서울 서초구의 제니엘빌딩에서 진행했으며, 제니엘, 제니엘시스템, 제니엘휴먼, 제니엘이노베이션 등 그룹사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또한 사내 화상 시스템을 활용해 지역본부 및 계열사 직원들에게도 실시간으로 공유했다.

제니엘은 1996년 설립 이후 '일하고 싶은 모든 사람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라는 슬로건 아래 성장해 왔다. 카드 배송 사업을 시작으로 컨택센터, 인재 파견, 의료, 유통, 제조생산 등 다양한 산업에 종합 HR 솔루션 컨설팅을 제공하며 국내 아웃소싱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이날 제니엘그룹은 회사 발전에 기여한 장기근속자를 비롯해 우수상, 모범상, 공로상, 특별상 등을 포상했고, 아웃소싱 산업 위상을 높인 3명은 명장으로 선발했다. 박춘홍 대표이사는 축사를 통해 "제니엘의 성장은 직원 개개인의 열정과 헌신 덕분"이라며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한편 제니엘그룹은 올 초부터 업그레이드한 IT 기반 종합 솔루션 '제모스 Ver 4.0'을 통해 HR 서비스와 내부 업무 효율성을 대폭 개선해 고객사 생산성 극대화를 이끌고 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제니엘플러스'와 '푸른꿈일자리재단'을 통해 장애인 취업 지원, 지역사회 동반 성장 등을 추구하고 있다.



## 제니엘, '2025 K-브랜드 어워즈' 수상

제니엘그룹이 2월 19일 더 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개최된 '2025 K-브랜드 어워즈'에서 K-서비스(아웃소싱) 부문을 수상했다. K-브랜드 어워즈는 올해 2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산업·콘텐츠 브랜드 시상식으로, 창의적이고 선진적인 브랜드 경영을 통해 국가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 및 기관, 콘텐츠 등을 선정해 시상한다. 이번 수상은 제니엘그룹의 선도적인 브랜드 경쟁력과 아웃소싱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 제니엘, 'HR서비스산업대상' 수상

제니엘그룹이 2월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회 HR 서비스산업업인의 날' 행사에서 'HR 서비스산업대상' HR 서비스기업 부문을 수상했다. HR 서비스산업대상은 HR 서비스산업의 산업 위상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 성과를 널리 알리기 위한 상으로, 제니엘은 수상을 통해 차별화된 HR 솔루션을 통한 업무 효율성 극대화, 글로벌 IT 아웃소싱 사업의 확대, 사회취약계층의 사회 진출, 매년 일자리 세미나를 통한 취업 정보 제공 등 HR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펼치는 노력을 인정받았다.



## <Together Vietnam 2025> 컨퍼런스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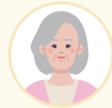
제니엘그룹이 2월 26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IT 개발자 오프쇼어링 서비스 과제와 해결 방안을 주제로 'Together Vietnam 2025' 컨퍼런스를 진행했다. 현재 국내 IT 기업은 수요·공급 불균형에 따라 IT 기술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고객이 핵심 업무에 집중하도록 채용, 교육, 관리 등의 인력관리를 전문기관에 맡기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제니엘은 작년 3월 베트남 '리케이소프트(Rikkeisoft)'와 체결한 MOU를 바탕으로 베트남의 우수한 IT 인재를 활용한 솔루션을 제안하고 있다.

소중한 사람을 위한 믿을 수 있는 선택

# 제니엘만의 시니어 케어 브랜드 '젠케어'를 소개합니다



## 이용 대상자



65세 이상의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어르신



65세 미만의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환으로 생활이 불편하신 분 및 가족

## 제공 서비스

등급이 없으시다면?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대행

직접적인 도움을 원한다면?

방문요양 서비스  
(가족요양 포함)

일상생활을 돕는 용품이 필요하다면?

복지용구  
(휠체어, 지팡이 등 어르신  
생활보조품목 구매 및 대여)

위 제공 서비스는 국비를 통해 최소 85% ~ 최대 100% 지원해 드립니다.

## 문의처

대표번호

**1566-8838**

빠른 문의

**010-5573-8324**

젠케어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12, 2층

E-MAIL : zencare@zeniel.co.kr

대표홈페이지 : www.zencare.kr

카카오톡

